KB증권

FIRST TO THE MARKET

더 많은 리포트 보기

2025년 5월 8일

유틸리티/ESG Analyst 정혜정
hyejung.jung@kbfg.com

원전산업

체코 원전 늦어질 뿐, 계약 무산 가능성은 제한적

체코 원전 최종 계약, 프랑스 EDF 소송 제기로 지연

— 5월 7일 한국수력원자력 (한수원) 등 팀 코리아와 체코 전력공사 (CEZ) 간 최종 계약 체결 예정이었던 체코 두코바니 원전, 프랑스 EDF가 체코 지방법원에 낸 소송으로 인해 법원의 판결이 날 때까지 계약 지연. 이로 인해 두산에너빌리티, 한전기술, 한전KPS 등 원전 관련주는 장중 최대 13~14%까지 하락했으며, 최종적으로는 각각 1.44%, 3.79%, 1.85% 하락 마감

— 프랑스 EDF는 지난 2일 수주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한수원에 대한 두코바니 신규 원전 계약 집행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고, 체코 브르노 지방 법원은 7일 이를 인용. 최종 판결이 날 때까지 최종 계약 체결은 지연이 불가피해짐 .

무산될 가능성은 제한적, 다만 관건은 체결 시기

— EDF의 지속적인 이의 제기에도 한수원의 체코 원전 수주가 무산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판단. 1) 체코 정부의 원전 도입에 대한 의지가 강하고, 2) 경제성 및 적시성 측면에서 한수원이 가장 좋은 선택지이기 때문

—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는 “입찰 평가 절차는 법률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되었으며, 업체 선정 시 시민과 기업에 대한 저렴한 전기 공급이 중요한 요소”였다고 발언했음. 이번 소송의 대상이 된 체코 반독점당국 (UOHS)은 EDF의 이의를 2차례 기각한 바 있으며, 체코 두코바니 원전의 발주처인 EDU II는 ‘EDF의 이번 소송은 근거가 부족하며, 소송이 기각될 경우 EDF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 중’이라고 밝혔음

— 체코 정부는 2036년 원전의 시운전, 2038년 상업운전을 목표로 두코바니 원전을 건설하려는 계획 하에 발주를 진행. 만일 EDF의 소송으로 수주가 지연되면 체코 에너지 정책에 차질 발생 가능

— 한편, EDF가 한수원의 수주에 이의를 제기하는 가장 큰 요인은 가격임. EDF는 한수원이 한국 정부로부터 보조금 성격의 지원을 받고 있어 낮은 입찰가를 써낼 수 있었다는 입장

— 2022년 폴란드 원전 수주에서 한수원과 EDF, Westinghouse의 3파전 당시 건설단가는 한수원은 267만달러/MW, EDF는 460만달러/MW, Westinghouse는 400만달러/MW로 제시해, 한수원의 단가가 가장 낮았음. 그러나 이는 예상 공기 지연에 따른 사업비 증가를 반영했기 때문이라고 판단. EDF의 경우 최근 완공한 프랑스 Flamanville 원전은 12년, 핀란드 Olkiluoto 3 원전은 14년 지연되면서 사업비가 4배 이상 늘어난 바 있음. 반면 한국의 UAE 원전은 계획대비 2년 지연되어 1호기를 완공했음

— 다만 계약의 재개는 관련 소송이 마무리된 이후에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명확한 재개 시점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은 리스크 요인

한국 원전 경쟁력 증명할 것, 두산에너빌리티에 대한 긍정적 의견 유지

— 이번 체코 원전 수주의 연기는 한국형 원전의 수출에 따른 신규 대형 원전 수주를 기다리던 원전 업체들 입장에서는 아쉬운 상황이나, 소송 과정에서 EDF와 팀 코리아 간의 조건 비교를 통해 적시성과 경제성 차원에서 한국 원전 공급망의 경쟁력이 한 번 더 부각되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음

— 경쟁력이 재확인되면 한국형 원전 뿐만 아니라 Westinghouse의 대형원전 및 SMR 등 다양한 원전의 주기기를 생산하는 두산에너빌리티의 수혜가 클 것으로 전망. 한편, 한국형 원전의 수출 트랙 레코드 확보 및 경쟁력 재확인을 통해 두산에너빌리티 외에도 한전기술, 한전KPS 등 팀 코리아의 후속 원전 수출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

투자자 고지 사항

KB증권은 자료 공표일 현재 [두산에너빌리티]의 채권자 채무자인 법인입니다.
KB증권은 동 조사분석자료를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.
본 자료를 작성한 조사분석담당자와 그 배우자는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.
본 자료 작성자는 게재된 내용들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
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

이 보고서는 고객들에게 투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며 계약의 청약 또는 청약의 유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. 이 보고서는 KB증권이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하는 자료와 정보에 근거하여 해당일 시점의 전문적인 판단을 반영한 의견이나 KB증권이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,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 개별 투자는 고객의 판단에 의거하여 이루어져야 하며, 이 보고서는 여하한 형태로도 고객의 투자판단 및 그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.
이 보고서의 저작권은 KB증권에 있으므로 KB증권의 동의 없이 무단 복제, 배포 및 변형할 수 없습니다. 이 보고서는 학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므로, 학술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KB증권에 사전 통보하여 동의를 얻으시기 바랍니다.